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구전으로 가는가

손자가 쓴 「병법」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옛날의 선전자(善戰者)는 먼저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이쪽 편이 승리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렸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쪽 편에 달려 있고, 이쪽 편이 승리하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쪽 편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쪽 편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것은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공격하는 것은 군사력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방어를 잘하는 것은 마치 땅 속 깊이 숨어있는 것 같고, 공격을 잘하는 것은 마치 높은 하늘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쪽 편의 군사력을 보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승리의 조건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아니다. 승리를 하되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승리는 최선의 승리가 되지 못한다. 가는 텔을 집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하지 않으며, 해나 달을 보았다고 해서 눈이 밝다고 하지 않고,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귀가 밝다고 하지 않는다.

옛날의 선전자(善戰者)는 기회를 포착하여 자명하게 승리한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선전자는 승리해도 지모나 공적 따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승리하는 데는 오산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전쟁 전에 승리를 보고

있었고, 처음부터 패자(敗者)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전자는 애초부터 패배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적이 패배할 요소를 포착하는 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요컨대 선전자는 승산이 확실한 뒤에 전쟁을 하고, 패배자는 덮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바란다.”

손자「병법」을 여기서 들추는 까닭은 서울지하철 파업을 기둥 삼은 ‘4월 총력투쟁’이 마치 전쟁판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타협의 여지마저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치열한 싸움판을 방불케 했다. 아직도 민주노총이 이끄는 총력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한 자체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을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한 중간 점검 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석치순 위원장의 고백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난 4월1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가 8일 만인 26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도 어차피 궤도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파업철회를 공식 선언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중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조합원들이 많이 지쳤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상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각종 지하철 운행 중단에 대한 시민여론도 고려했다. 구조조정 문제와 고용안정 쟁취라는 노조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고 자괴감이 든다. 파업 철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략 전술이 잘못됐든 주위의 여건이 불리했던 모두 나에게 있다.”

또 이번 파업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석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특성을 굳이 따진다면 많은 것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원들간의 뜨거운 등지에와 반민중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겨레』, 4월27일자)

그리고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석 위원장은 과업투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가시적 성과를 띠내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전됐었고, 노동자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노

선전자는 세초부터 폐배라지 산을 태세를 갖추고 적이 폐배할 요소를 포착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요컨대 선전자는 승산이 확실한 뒤에 전쟁을 라고, 폐배자는 덤어놓고 전쟁을 시작한 뒤에 승리를 바란다.

동계 전체가 힘을 신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노조 내부적으로 파업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고 다른 노조들의 동력이 불어주지 않으면서 내부 혼란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전체 노동계 차원의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쌔움은 엄밀히 말해 ‘무승부’고 지하철노조가 어쨌든 민주노총의 투쟁에 불씨를 당겨냈다는 점에서 노조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석치순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투쟁 평가는 명확한 계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무게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하철 과업투쟁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총력투쟁에 불지핀 지하철 투쟁

먼저 지하철 투쟁에서 나온 요구들부터 보자. 거기에는 민주노총의 4대 요구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철회와 아울러 지하철 노조의 독자적인 요구가 제기되었다. 2000년 12월31일까지 1기와 2기 지하철 통합, 노사정 통합추진위 설치와 직무분석을 통한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직제 정원 마련, 건설부채 중앙정부 이관을 위한 공동노력, 일방적 구조조정 철회 및 부족인력 총원, 연봉제 철회, 민·형사상 책임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요구들은 노조의 처지에서는 절실한 것이면서도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침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부터 갈등과 대결의 요소는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런데 노조가 내건 이런 요구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채, 언론의 비판대상이 되어 물의거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요구의 명확성과 정당성이 투쟁을 충실히 하게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투쟁을 둘러싼 정세는 어떠했던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의 경제·사회 상황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합리화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여론 등향도 정부 쪽에 유리하도록 작용하기 쉬웠다. 또 과업사태를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뜨악하기만 했다. 노동세력의 역량도 이런 정세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대하지 못했다. 요컨대 정세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불리한 편이었다.

그리고 이번 지하철 파업이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되고 전체 노동운동 발전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투쟁이 승리로 끝나든 패배로 끝나든 간에 성실한 자세를 취할 때만이
값진 교훈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운동이야말로 승리와 패배 속에서 합법적성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든가. 어쩌면 노동운동이 치러야 할 큰 판의
투쟁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투쟁의 새 지평을 열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다.

투쟁의 새 지평을 열어야

서울지하철 과업투쟁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의 성격을 지닌다. 그 투쟁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력투쟁'의 선도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벌어질 투쟁의 진지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런 점에서 지하철 투쟁의 의의는 총력투쟁의 전전과 더불어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현재의 시점에서 끊어 본다면, 지하철 투쟁은 패배로 규정될수도 있을것이다. 그 패배는 이후의 투쟁 전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승리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억지를 부리지는 말자. 투쟁이 승리로 끝나든 패배로 끝나든 간에 성실한 자세를 취할 때만이 값진 교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야말로 승리와 패배 속에서 합법적성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든가. 어쩌면 노동운동이 치러야 할 큰 판의 투쟁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투쟁의 새 지평을 열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다. 지하철 과업의 투쟁에서 교훈을 이끄는 것은 앞으로의 더욱 큰 투쟁에서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차피 노동자 투쟁은 지구전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